

# 第43回(7月 17日) 制憲節을 맞는 制憲國會議員同志會 尹在旭 會長



<年度未詳이나 3.1節 紀念行事때의 演說場面, 그밖에도 數 많은 蹶起大會, 聲討大會에 演士로서 民族魂을 일깨웠다>

大韓民國이 誕生하고 그 나라 母法인 憲法을 制定宣布한지가 지난 17日로서 43돌을 맞이했다. 서울 永登浦에서 尹在旭 齒科醫院을 開院하고 계신 尹在旭 會長은 制憲國會議員으로서 더구나 制憲 國會議員 同志會 會長으로서 制憲節을 맞는 感懷는 남다른 바가 있다.

82歲의 老境임에도 지금도 손수 自身の 車를 모는 老政治家이자 元老齒科醫師를 지난 17日 制憲節날 KBS 2 TV에서는 “11시에 만납시다”프로에 尹會長을 모신바 있다.

그 자리에서 波瀾萬丈한 政治歷程과 그리고 齒科醫師로서 多様な 人生 파노라마를 펼쳐 놓았다.

現在 生存해 있는 制憲議員은 겨우 19名, 平均年齡 85歲, 이들은 每週 水曜日이면 한자리에 모여 지난날을 回想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舉動이 不便한 4,5名을 除外한 나머지 會員은 比較的 健康한 편이며 政府에서 月 50萬원의 生活費를 支援 받고 있다.

그동안 憲法 改正이 아홉번이나 되었으며 黨利黨略에 의해 그때그때 改憲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1948年 5月 10日 첫 國會議員에 當選된 議員은 거의가 순수

制憲國會와 3代議員을 지낸바 있으며 現在 制憲國會議員同志會 會長이신 尹在旭 先生이 第43回 制憲節을 맞는 感懷는 남다른 바가 있다.

서울 永登浦에서 齒科醫院을 開院하고 계신 前 齒協顧問 尹在旭 先生을 지난 17日 第43回 制憲節을 맞아 KBS 2 TV에서는 “11시에 만납시다”프로에 모신 자리에서 自身の 波瀾萬丈한 政治歷程과 그리고 齒科醫師로서 多樣한 人生 파노라마를 펼쳐 놓았다. 齒科醫師로서 唯一하게 2代에 걸쳐 議員生活을 하신 尹在旭先生에 人生歷程의 一端을 더듬어 본다.

한 愛國者였다. 權謀術數도 모르고 그저 愛國하는 마음 그것 뿐이었다.

故 俞鎮午 박사의 主導아래 專門委員, 基礎委員이 한 팀을 이루어 처음에는 內閣責任制로 基礎했다가 당시 프랑스가 內閣責任制였는데 한해에 몇번씩 改閣해야 하는 어려움을 보고 大統領中心制를 加味한 方式으로 基礎했다.

8.15 解放后 永登浦一帶는 거의가 左翼分子의 世上이었다. 이 左翼分子를 몰아내기 위해 青年運動에 뛰어 들었다. 光復青年會, 大同青年團에 關興하면서 愛國運動, 反託運動을 하는 가운데 眞實로 愛國的인 熱血青年이 모여 들었다.

「나는 宗教人이 되어 全生을 宗教에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1978年 언젠가 齒協會誌 取締陣과 對話하는 가운데서 하신 말이다.

YMCA學校 高等科를 거쳐 皮漁善高等聖經學院을 나왔으니 말이다.

그러나 偶然한 機會에 齒科醫師 조경호氏와 因緣이 되어 1941年 齒科醫師試驗에 合格, 齒科醫師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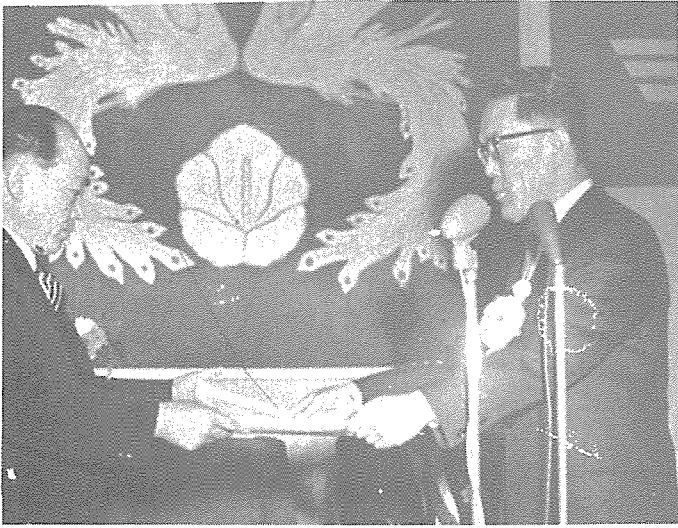
1941年 그 當時는 荒蕪地나 다름없는 永登浦에서 中央齒科醫院을 開設한 것이 近 50餘年을 永登浦에 묻히게 된 契期가 되었다. 工場이 덤덤히 서 있을뿐 齒科醫院의 運營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最高의 醫療施設과 最大의 씨-비스토 患者를 극진히 對했다. 그야말로 全力投球를 했다. 至誠이면 感天이라드니 金 配給을 全國에서 제일 많이 받았고 稅金을 제일 많이 냈다. 日人들이 배가 아팠지만 하는 수가 없지 않은가.

지금도 最高의 施設을 갖추고 있다. 씨-멘스製 Unit Chair 한 셋트를 갖추어 놓았고 附帶施設도 完備했다. 20年前인 그 當時 돈으로 500萬원이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집이기도 하겠지만 젊은이에게 刺戟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施設이 必要하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지금도 부르짖는 醫權伸達, 이것은 앓아서 되는데 아니다. 『내가 齒科醫師로서 所任에 充實했고, 愛國的인 青年運動에 앞장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憂國青年들이 모여 들었겠읍니까. 永登浦는 8.15 解放直後는 第2의 모스크바였습니다. 이것을 齒科醫師의 힘으로 몰아냈으며 팔십만던 永登浦가 工場都市로 發展할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된 것입니다』

永登浦 一帶의 手動電話施設을 걸어치우고 自動電話로 바꾼것은 3代議員生活을 하면서 尹在旭先生의 鬪爭의 山證據이다. 當時 郭義榮遞信部長官이 感謝狀을 傳達하기 爲해 直接 永登浦電話局까지 왔을 程度였고 그 後 李大統領도 訪問한 바 있다.

6.25事變이 일어났다. 即時 募兵에 나서 젊은이들에게 國家의 위기를 呼訴했다. 목에서 피가 터지고 四肢가 늘어졌지만 그 다음날 또 다음날 그 淒絶한 絶叫는 계속되었다. 수많은 蹶起大會, 國民大會에서 愛國하는 마음



〈永登浦局 電話가 自動化될때 尹在旭선생의 높은 功을 致賀하는 郭義榮 체신부장관〉

을 길러 주었다.

1978年 韓國青年運動協議會 副會長으로 있을때 6.25 28周를 期하여 「북괴남침야욕구탄킬기대회」도 主導했으며 參戰國 記者들도 초청한바 있다.

그리고 1967年 10月 創設한 영등포 로-타리클럽 創立會員으로서 長老會員으로 있으며 이 클럽에서는 獎學事業도 하고 있다. 1977년에는 미국, 캐나다, 덴마크, 서독等 13個國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다.

齒科醫師 同僚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自身을 길러라』 이것이다. 自尊心을 버리고 奉仕하는 謙虛한 姿勢로 每事에 臨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平凡한 齒科醫師의 한사람이다.

젊은이는 先輩에게 반드시 배울 것이 있는 것이며, 나이먹은 사람은 또한 젊은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가짐이 특히 重要하다는 것이다.

8.15이후 歷史속에 살아가면서

共産黨하국의 鬪爭으로 一貫했다. 共産黨의 正體를 알고 共産主義니 社會主義니 운운 했으면 좋겠다.

韓國의 所重함을 알아야 한다. 國際적으로 永遠한 敵도 없고 친구도 없다.

우리나라를 分斷시키고 北韓을 使嗾해서 6.25를 일으킨 蘇聯과도 修交하고 있을 뿐 아니라 大統領이 오가고 있고, 6.25事變대 銃뿌리를 맞던 中國과도 머지않아 修交前夜에 있듯이 우리는 急變하는 世界속에 살고 있다.

歷史에서 教訓을 찾지 못하는 民族은 忘한다. 日帝의 죄사슬에



〈淒絶한 6.25 戰爭이 일어나자 赤化危機에 大韓民國을 救하고자 全國坊坊曲曲을 누비며 募兵演說을 하는 尹在旭선생의 絶叫하는 모습〉



三八線停止說排擊國民大會場에서의 尹在旭先生



<齒科醫師會 모임에서 現時局에 對한 講演을 하는 尹在旭 會長>

서 8.15 解放을 맞는 感激도 잠간이고, 赤化野慾에 불타는 共產集團의 南侵으로 祖國山野를 焦土化로 만들었던 6.25를 겪으면서 우리는 크게 다음 3가지의 敎訓을 얻었다.

첫째는 共產黨의 正體와 本質을 알았고, 둘째는 同族相殘의 悲慘함을 깨달았으며, 셋째 日帝統治는 36年間이었지만 6.25發勃直後 3個月동안에 大韓民國이 얼마나 所重한가를 깨달은 것이다.

歷史意識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야 하고 모든 面에서 民主化가 되어야 한다. 近來의 政黨은 公黨이 아니고 私黨化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國民을 爲해 政治부터 民主化 되어야 한다.

50代는 라디오, 40代는 TV, 2, 30代는 컴퓨터 時代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宇宙時代에 살게 될 것이다. 現代와 既成世代와의 調和를 이루어 團合해서 民族的 意識을 가지고 健全한 民主國家를 建設해야 한다.

우리 韓國은 底力을 가지고 있어 希望찬 國家이다. 政治에 휘말리지 말고 感情에 휩쓸리지 말기를 바란다.

尹會長은 『남은 餘生을 地域社會 發展에 힘쓸 생각이다. 大韓老人會 副會長으로 있을때 老人福祉法과 老人憲章을 만든 것이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永登浦 로타리 클럽을 通해 奉仕事業의 內實化를 期하고, 南서울 老人大學

運營에도(現在 16年째 16期生을 輩出했다) 온 힘을 傾注할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신다.

制憲國會議員 尹在旭, 元老齒科醫師 尹在旭선생의 萬壽無疆을 빈다.

= 간추린 經歷 =

本籍: 京畿道 安城郡 二竹面 竹山里 477  
住所: 서울 永登浦區 永登浦洞 4가 49  
西紀 1910年 8月 25日生

- 1934年 3月 基督教青年會學校 高等科 卒業
- 1936年 3月 皮漁善高等聖經學院 卒業
- 1941年 9月 齒科醫師國家試驗合格
- 1941年 9月 永登浦에서 中央齒科醫院 開院
- 1945年 9月 永登浦青年會 會長
- 1946年 9月 光復青年會 永登浦區 團長
- 1946年 10月 國民會 永登浦區 支部長
- 1947年 10月 大同青年團 永登浦區 團長
- 1948年 5月 制憲國會議員 當選
- 1948年 7月 서울市齒科醫師會 會長
- 1949年 12月 大韓青年團 永登浦區 團長
- 1952年 4月 自由黨 永登浦區黨 委員長
- 1954年 5月 三代國會議員 當選
- 1958年 2月 尹在旭齒科醫院 開院
- 1959年 10月 自由黨 서울市黨副委員長 (自由黨 訓練院長)
- 1960年 10月 大韓齒科醫師協會 副會長
- 1967年 10月 永登浦 로타리 클럽 創設
- 1975年 10月 建國青年運動協議會 本部 會長(現)
- 1986年 大韓齒科醫師協會 顧問
- 1990年 制憲 國會議員同志會 會長 (現)

◎南서울 老人大學 創設